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 연구

이 수 정

경기대학교

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북한인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거리감, 그리고 개인의 인지적인 스타일이 북한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탐색되었다.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 응답자들에 비하여 북한 출신 배우자들과 혼인할 의사가 훨씬 적다고 대답하였으며 또한 북한인들에 대한 거리감과 고정관념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들에게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여성들과의 결혼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 개인의 인지적인 스타일이 고정관념의 정도보다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통일론의 관점에서 이런 결과들은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인지가 토론되었다.

1990년대 들어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이 전개되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논의도 부쩍 활발해졌다. 그것은 한반도의 분단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양 진영의 냉전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냉전이 종식된 마당에 한반도의 분단도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남북 분단의 주역 가운데의 하나인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함으로써 북한체제가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크게 확산되어, 남북한 통일논의의 불씨가 더욱 당겨졌다고 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후원자였던 소련이 붕괴한 뒤 북한의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고, 홍수와 가뭄 피해까지 겹쳐 전대미문의 식량난이 초래됨으로써 다시 한 번 북한 붕괴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이 분단된지도 어언 반세기가 흘러 공산주의 소련의 붕괴와 같은 세계사적인 대전환과, 한반도 내부 특히 북한 내부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문제는 이제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일, 혹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될 일이라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인 담론을 통하여 논의되고 있는 통일

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개략적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전인영, 1990). 이들은 ①흡수통일론, ②단계적 통일론, ③분단유지론 등이다. 첫 번째의 흡수통일론은 북한이 경제난과 식량난, 정권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조기에 붕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경제력이 월등히 우세한 남한이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 해당하며 주로 남한의 극우세력과 다수의 보수세력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의 단계적 통일론은 북한의 체제는 경제난 등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또 무너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라는 전제하에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남북한이 당분간 공존하는 상태를 거쳐 국가연합, 1국가 2체제 등의 단계를 지나 궁극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이다. 세 번째의 분단 유지론은 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이 바라고 있는 현상 유지론이다.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이 지원하는 남한의 주도하에 통일되는 것은 중국에게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 한반도가 급격히 통일된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등 정세 불안이 초

래될 것이라는 점, 통일 이후에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아직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의 통일은 그 과정에서 내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주변 국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통일 이후 한반도에 상당한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강력한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일본은 가능한 한 한반도에 보다 안정된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김태현, 1995).

안팎의 통일 논의가 이같이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민족공동체의 복원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배와 종속, 즉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내부 식민지화하는 방향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민족사에 두고두고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흡수통일론의 경우를 보면,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승자와 패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흡수 통일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자본주의체제'가 아니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는 결국 '승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또 분단 상황하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통일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들에게는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민족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분단 유지론은 결국 남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된 한민족이 본래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맡겨서는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의 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주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셋째,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에 대한 시각들은 크게 셋으로 나뉘어 있다고 여겨진다. 첫 번째는 반북적 시각(反北的 視覺)이다. 이는 앞서 본 흡수 통일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으로서, 북한은 존재해서는 안되었던 집단이며 멸망해야 할 집단이라는 시각이다. 이 시각에서는 북한의 모든 측면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일말의 신뢰도 부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동정적 시각(同情的 視覺)이다. 특히

최근에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북한의 주민을 마치 아프리카의 한 주민 집단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다. 북한 동포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는 시각이 아니라 마치 남의 나라의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 시각(共同體的 視覺)이다. 최근 북한 동포 돕기 운동에서 상당수의 대중들, 특히 전후 세대들의 상당수는 북한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을 가진 이들은 아직 주류를 이루었다고는 볼 수 없을 듯하다.

대체로 볼 때 분단 50년의 세월은 대부분의 한반도 주민들로 하여금 서로를 운명공동체로서 인식하기보다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 혹은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또 한가지 최근 대두된 입장은 과거 '북한은 남한 사회의 붕괴를 획책한다'는 두려움이 통일 후 '거지 떼가 몰려올까 봐 두렵다'는 식의 불안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불안은 통일 후 독일의 사회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독일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제·사회 및 화폐통합과 1990년 10월 3일 구서독 연방 헌법 제 23조에 의거한 동독의 서독연방 가입이라는 두 가지 결정으로 분단을 극복하여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애초 베를린 장벽은 1989년 11월 9일 주변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동독 내부의 자유화 분위기에 밀려 아무런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삽시간에 무너졌다. 이런 방식의 통합방법은 동독의 체제와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시에 서독에 '흡수'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동독은 기본적으로 서독의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통일의 실질적인 문제, 즉 사회나 정제의 정책적인 통합방식이나 민족의 단일성 회복 등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즉흥적인 대응 또는 단순한 서독 제도 '이식'의 수준에 머물러, 통일 후 각 분야에서 나타난 난관의 정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고, 사회 전체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서독은 정치적 통합에 앞서 경제 및 화폐를 통합했다. 그 과정에서 동독의 경제는 급속히 와해되었고 총생산의 40% 이상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독 경제의 붕괴는 통일비용을 당초의 예상보다 크게 증가시켜 서독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하였고

높은 실업률을 야기했다. 특히나 실업은 동독민들에게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패배자로 전략함을 의미했고 해당자나 그 가족의 삶에 위기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런 실업문제는 생소한 규범과 제도 속에서 혼란을 느끼는 동독민들의 자아정체감 상실을 야기하였다. 또한 동독민들은 과도한 통일 비용을 지불하기 거부하는 서독민들의 자세, 동독민들 과거의 삶에 대한 무지와 무시, 이로써 비롯되는 편견, 동독 몰락으로 인한 위신의 상실, 서독민들의 거만한 태도 등과 함께 체제 통합 과정에서 서독 사회의 하위 계층으로 편입되어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양 독 국민들간의 격차는 심리·사회적인 것을 넘어서 정치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 정착되어 가는 정치·제도상의 외적 통합과는 달리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사회적 담론으로 지배적인 흡수통일론과 탈북자들에 대한 시각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하여 준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멸의 의미로 동독인들을 'Ossi'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는 배척하는, 통독 후 독일의 역기능적 사회현상을 우리라고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여 볼 수 없게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좀더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지각하고 북한 주민을 대등한 인격체로 지각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미리 성숙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굳이 흡수 통일론이나 단계적 통일론이나를 따지기에 앞서 민족의 심리적인 통합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점은 우리들의 시각에 대한 실패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일일 것이다. 일단 문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움도 훨씬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인 집단에 대한 일부 한국인들의 시각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거의 수행된 적이 없다. 하지만 전우영(1999)은 다차원 분석을 이용하여 북한동포, 북한남성, 북한여성, 남한남성, 남한여성 등의 남, 북한 하위집단에 대한 지각이 지배, 피지배의 차원으로 주로 구분됨을 밝혔다. 즉 지배적인 북한남성이나 북한의 지배계급에 비하여 나머지 여성들의 하위집단이나 남한의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더 지배성이 약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 연구는 응답자들의 북한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실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으며 아직까지 남한인들은 북한의 다

양한 하위집단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시각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 연구에서는 좀더 나아가 이와 같은 북한인들에 대한 획일화된 시각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들 북한인들에 대한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나아가 실제로 행동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이들 북한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또는 개인 특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관련성을 맺을지를 연구하여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현 연구에서는 개인의 혼인의사 여부를 궁극적인 차별행동으로 선택하였으며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북한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편견의 내용, 그리고 고정관념의 물리적인 지표인 거리감을 우선적으로 측정하였다. 북한인에 대한 구체적인 혼인의사를 궁극적인 종속 측정치로 선택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태도 문항들에서보다는 행동측정치나 행동의향을 측정하는 문항들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행위는 더 민감하게 포착되기 때문이었다(이수정, 1999).

궁극적인 혼인의사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응답자들의 인구학적인 특성들과 내적인 정보추구의 경향, 그리고 개인이 지닌 연애편을 조사하였다. 이전의 연구(홍대식, 1996)는 개인이 지닌 주관적인 연애편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상당히 유의적인 영향력을 지님을 확인하여 주었다. 따라서 현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한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가 북한인인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이 지닌 주관적인 연애편은 최종적인 혼인 결정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예컨대,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연애편을 지닌 응답자들보다는 이타적 사랑이나 친구같은 사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막상 연애하는 상대가 북한 출신인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더 많이 지닐 것이라 예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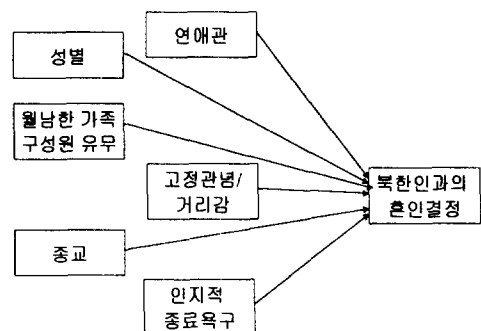


그림 11. 북한인과의 혼인의사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변수들

편견이나 거리감, 그리고 연애관 이외에도 북한인 배우자를 맞이하겠다고 결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변수로는 집안에 월남한 사람이 있는지, 또는 응답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등이 있을 것이라 예견되었다. 아무래도 집안 식구들 중 월남한 사람이 있는 경우, 비록 연애하는 대상이 북한 출신이더라도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높을 것이다.

이들 설명변수들 외에도 혼인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 인지적 종료욕구가 측정되었는데 Kruglanski, Webster와 Klem (1993)에 의해 개념화된 종료욕구는 이전 연구들에서 고정관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받았었다(전우영, 1998). 따라서 현 연구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혼인의사 역시 집단 고정관념에 의해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는 관습적인 믿음 때문이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개인의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행위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날 혼인의사 결정은 개인마다 독특한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소양, 그리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정도와 평상시 연애관이 유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즉 집안에 월남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 북한인들에 대한 거리감이 적은 경우, 그리고 자유로운 연애관을 지녔을수록 연애 상대가 북한 출신이라도 혼인의 의사를 지닐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그림 1과 같다.

I. 방 법

1. 대상

경기대학교에서 인간심리의 이해를 수강하는 총 297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156명(52.5%)이었으며 여학생은 140명(47.1%)이었고 성별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한 명 있었다. 종교는 무교와 기독교가 가장 많아 무교 51.2%, 기독교 21.9%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07세 (SD=4.81)였으며 결혼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2. 도구

각 개인의 애정관과 인지적 스타일, 그리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개발된 검사지들을 이용하였다. 우선 애정관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Hendrick과 Hendrick (1989)에 의해서 개발되고 홍대식(1996)에 의하여 표준화된 사랑스타

일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Lee(1973)의 사랑 이론을 토대로 6가지의 애정 스타일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는데, 열정에, 게임애, 친구애, 미혹애, 실용애, 이타애의 정도를 측정한다. 각 하위척도는 열정에 8문항, 게임애, 8문항, 친구애 8문항, 실용애 7문항, 미혹애 7문항, 이타애 8문항 등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하위 척도들의 내적 일관성 지수는 현 표본에서 역시 .75, .67, .71, .75, .71, .87로 상당히 높은 정도의 내적 일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지적인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Kruglanski, Webster와 Klem (1993)의 인지적인 종료욕구 척도가 사용되었는데 이 척도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고정관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질적인 특성임을 여러 연구들(변지은, 이수정, 유재호와 이훈구 1997; 전우영, 1998)이 확인하였기에 현 연구에서 역시 북한인들의 고정관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인지적인 스타일로 선정되었다. 변지은, 이수정, 유재호와 이훈구(1997)는 원 척도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하여 5개의 잠재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모호한 상황에 대한 불편감, 계획적인 삶에 대한 선호, 명확한 판단 경향성, 예측가능성 선호 그리고 폐쇄적인 사고로 대표되었는 바, 이 척도는 인지적으로 정보탐색을 종료하고 확실한 상황을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준다. 현 표본을 대상으로 42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내적인 일관성 지수는 .74였다.

북한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김혜숙(1988)이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격형용사들을 이용하여 고정관념의 내용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18개씩의 기질표현 형용사들이 사용되었는 바, 한 번은 북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한번은 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적이다', '공격적이다', '정직하다', '거만하다', 등의 형용사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면 되었다. 이들 형용사 중 긍정적인 형용사의 점수들은 모두 역 코딩되어 채점되었다.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송관재, 김범준, 홍영오와 이훈구(1997)가 사용하였던 사회적 거리감 척도가 사용되었는데 이 척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집단성원과 어느 정도 잘 지낼 수 있을지를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총 문항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의 내적 일관성은 북한 남성들을 대상으로는 .85, 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81로 산출되었다. 북

한인에 대한 혼인의 의사와 연애기간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적으로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북한인과의 혼인의사를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당신은 통일 후, 적당한 시기와 상황이라면 북한 남성(여성)과 결혼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 ‘있다’, 또는 ‘없다’로 답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나서 결혼상대로 바람직한 특성들을 순위 짓도록 하였는데 이때는 남한 출신과 북한출신 각각에 대하여 따로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혼상대의 요건은 ‘대학졸업자’, ‘돈벌이 능력’, ‘이해심’, ‘성격’, ‘신체적 매력’등 15개 요건들이 주어졌다. 그리고 나서 남한인과 북한인들 대상으로 결혼 전 연애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절할 지를 물어보았다.

3. 절차

응답자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일단 연령이나 성별 등 개인 인구통계학적인 내용들을 먼저 기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랑스타일과 인지적인 종료욕구, 고정관념과 거리감에 응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혼과 관련된 질문들에 답하였다. 평균 반응시간은 약 45분이 소요되었으며 최대한 60분까지 시간이 허용되었다. 시간이 부족하여 문항에 다 응답하지 못한 피조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표 1. 남한인 이성과 북한인 이성과의 결혼 전 연애기간 평균 개월 수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남한인과의 연애기간	23.60(13.05)*	26.01(11.56)
북한인과의 연애기간	29.62(17.75)	36.33(16.72)

* 괄호안 표준편차

II. 결 과

현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개인이 지닌 거리감과 내적인 정보추구의 경향, 그리고 연애관이 북한인들에 대한 편견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북한인들에 대한 편견은 북한 배우

표 2. 설명변수들에 있어서의 남녀간 차이

	남성 응답자 평균	여성 응답자 평균
북한인 남성들에 대한 고정관념	57.12(8.00)	59.16(8.72)
북한인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	50.53(8.10)	50.54(8.89)
북한인 남성들에 대한 거리감	31.39(8.01)	32.38(6.62)
북한인 여성들에 대한 거리감	31.18(6.46)	30.24(6.78)
인지적 종료욕구	147.78(12.39)	146.34(15.82)
열정에	22.33(5.08)	23.42(4.94)
게임에	26.63(5.12)	28.24(5.09)
친구에	25.14(5.96)	25.06(5.91)
실용에	18.96(5.05)	19.46(5.67)
미혹에	20.53(4.94)	21.16(5.53)
이타에	19.28(5.23)	24.65(5.97)

* 괄호안 표준편차

자들과의 혼인의사를 물어 봄으로써 측정되었다. 결혼 여부 외에도, 만일 피치 못할 경우 연애를 하게 된다면,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교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이들 두 가지 종속 측정치에 대해서 예측변수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현 연구에 포함되었던 응답자들의 성비는 남자가 156명으로 52.5%였으며 여자가 140명으로 47.1%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23.17세(SD=6.24)였으며 여자가 20.84세(SD=1.71)였다. 이들의 종교적 배경은 남자들(56.4%)이나 여자들(45.7%) 모두에게 있어서 무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후 이루어진 통계분석의 결과는 특정한 종교로 인한 결과라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 중에 월남한 사람이 있는지는 남자들의 경우 전체의 14.1%가 부모 외 가족 성원 중 월남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들의 경우 8.6%가 가족 성원들 중 월남한 사람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혼인 여부는 남자 응답자들 중 단 2명만이 기혼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모두 미혼이었다.

최종적인 회귀분석에 앞서 혹시라도 존재할지 모르는 북한인들과의 혼인의사에 있어서의 성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 이성과의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우리 남녀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카이제곱 값은 28.39로 유의도 .001 수준에서 상당히 현저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를 살펴 본 결과, 남성들의 경우에는 북한인 여성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할 수도 있다(68%)고 느끼지만 여성들의 경우 대다수가 결혼할 수 없다(63%)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 연애기간(표 1)에 대하여서도 상당한 남녀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결혼할 대상이 남한인이냐, 북한인이냐에 의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한 출신 배우자들을 대상으로는 연애기간에 있어서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t=1.68$, $p>.05$) 북한 상대를 대상으로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결혼 전 연애기간으로 상정한 개월 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34$, $p<.001$) 이런 차이는 남한인을 대상으로 한 교제기간 대 북한인을 대상으로 한 교제기간의 차이 점수에 있어서도 여전히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8$, $p<.01$). 즉 여자들의 경우 남한 대상에 비하여 북한 대상과의 교제 기간을 평균 10.31개월 정도($SD=12.38$ 개월) 더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약 6.03개월 정도($SD=13.17$ 개월)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표 1에는 응답자들의 미래의 남한 배우자, 북한 배우자들과의 바람직한 연애기간이 요약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 이외에도 가족 내에 월남한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혼인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지도 검색되었다. 그러나 월남한 가족 성원의 존재 여부는 북한인과의 혼인결정에 유의한 차이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8$, $p>.05$). 따라서 결혼에 의한 의사결정이나 결혼 전 연애기간에 대한 후속적인 분석은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들만을 따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북한인과의 혼인의사를 결정하여 주는 설명변수들은 무엇들인지를 위한 최종 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각의 설명변수들에 존재하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우선 탐색되었다. 표 2에는 남자 응답자와 여자 응답자들의 각 변수 상에서의 평균점수들이 요약되어 있다. Levene 통계치는 어떤 변수들에 있어서도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변산의 동질성 가정은 위배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유의도 .05 수준에서 현저한 성차이가 나타났던 설명변수들은 북한인 남성들에 대한 고정관념뿐이었다($t=2.10$, $p<.05$). 즉 여

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북한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관에 있어서의 성차의 경우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 좀더 강하게 게임애($t=2.72$, $p<.01$)나, 이타애($t=8.25$, $p<.001$)의, 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북한인과의 혼인의사를 설명하여 주는 설명인자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Wald 방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설명변수들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 개인 내적인 변수들, 그리고 애정유형변수들이 위계적으로 회귀모형에 첨가되었다. 그 결과, 남성들의 경우에는 인지적인 종료욕구만이 북한 출신 이성과의 혼인 여부를 좌우하는 것으로($b=.04$, $Exp(b)=1.04$, $p<.05$) 나타난 반면 연령, 종교, 또는 가족 중 북한 출신이 있는지 하는 여부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개인적인 애정 유형도 총 분산을 부가적으로 더 설명하여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료욕구를 많이 지닐수록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 내적인 변수들 중에서 북한 남성들에 대한 거리감이 어떤 변수들보다 북한 남성들과의 혼인결정을 더 많이 좌우하는 것으로($b=.07$, $Exp(b)=1.07$, $p<.05$) 나타났다. 즉 북한 남성들에 대하여 거리감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과 결혼하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북한인들에 대한 혼인의 결정에 있어서 나타났던 성별의 차이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하여 준다. 여성들의 경우 과반수가 북한인들과의 결혼은 피하겠다고 대답하였는 바, 이는 북한 남성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카이분석의 결과는 남한 남성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출신 여성들과 혼인을 할 수도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그런 의사결정은 개인의 인지적인 종료욕구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정보탐색에 비교적 개방적인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연애 상대가 북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만일 사랑하기만 한다면 결혼할 수도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이런 명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는 점은 이 두 가지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혼인결정을 설명하는 회귀모델의 경우 그 설명력은 단지 2.25%였으며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1.91%에 불과하였다. 물론 이 회귀모델들은 유의도 .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지만, 이들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해 좀더 강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서는 현 표본 이외에 다른 경우에 대하여서도 재차 적용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 전 북한인과의 연애기간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이냐를 좌우하는 설명변수들은 무엇일지가 탐색되었다. 이를 위하여서는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는 바,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인구통계적 또는 개인 내적인 변수도 연애기간을 예측하여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응답자들의 연애기간은 연령과 북한인 남성들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종료욕구들이 중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각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연령의 경우 $-.21(t=-2.62, p<.01)$, 북한인 남성들에 대한 거리감의 경우 $.22(t=2.71, p<.01)$, 종료욕구의 경우 $.17(t=2.06, p<.05)$ 이었다. 이들 위계적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13%였으며 F값은 7.84로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가 연속변인이었기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보다 설명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인에 대한 거리감이 많을수록, 그리고 인지적인 종료욕구가 높을수록 북한인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남한인을 대상으로 한 연애기간과 북한인을 대상

으로 한 연애기간의 차이점수는 곧 결혼문제에 있어서 북한인들에 대한 편견과도 맥을 같이하는 개념일 것이다. 앞서 t검정을 이용한 차이분석은 성별에 따라 이들 편견의 양도 상당히 많은 부분 달라짐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 차이를 야기하는 설명변수는 무엇이 있을지가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들을 구분하여 탐색되었다. 남성들의 결혼 전 연애기간을 예측하여 주는 변수들로는 연령, 종교, 북한 출신의 가족 성원, 종료욕구, 북한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 북한 여성들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각 개인의 애정관이 포함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로지스틱 회귀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종료욕구만이 상대의 출신에 따른 연애기간의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 t=2.19, p<.05$). 이 회귀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_{1, 152}=4.80, p<.05$) 설명력은 약 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들의 연애기간의 편견점수를 설명하여 주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변수들을 위계적 회귀분석에 포함시켜다. 그 결과, 북한인 남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성들의, 남한 남성들에 비해 북한인들에게 지니는 편견의 정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6, t=3.18, p<.01$). 이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약 6.2%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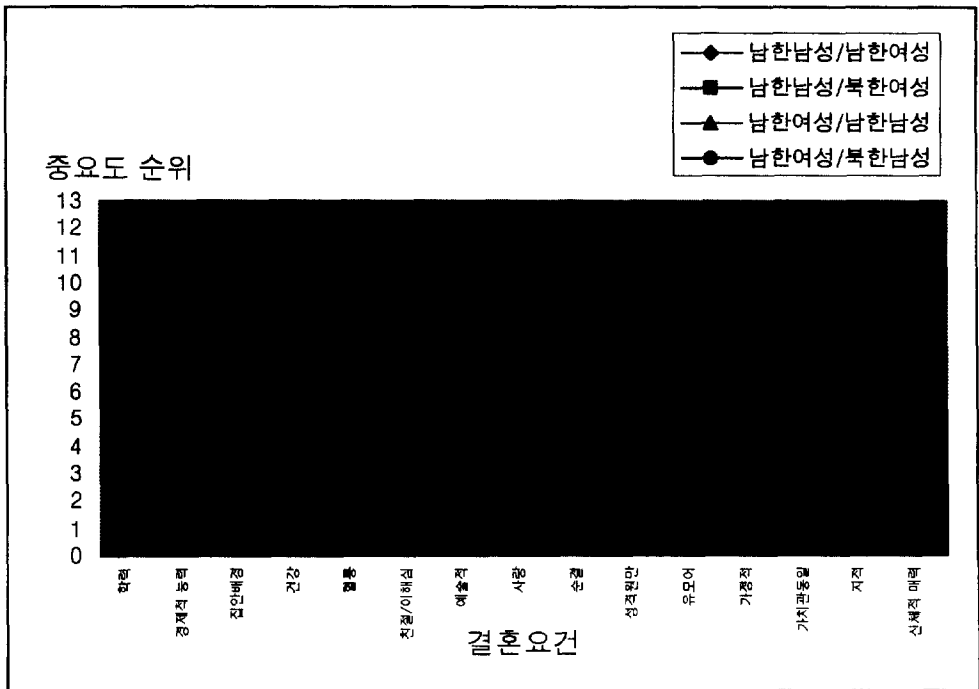


그림 2. 남한과 북한 출신 배우자에 대한 결혼요건 선정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차이

하였다($F_{1, 152}=10.12, p<.01$). 이 결과는 연애 상대가 북한 출신일 경우, 남한 상대에 대해 책정하는 연애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을 더 많이 잡는 이유가,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인지적 스타일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가 소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남한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북한 남성들에 대해 지니는 고정관념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의해 결혼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됨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북한 여성들과의 연애관이 개인의 인지적 스타일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되는 듯하다.

결혼여부나 연애기간 이외에 남녀 별 연애상대나 배우자 선정의 기준 요건은 무엇일지가 조사되었다. 남성들의 경우 남한 여성을 연애상대로 생각할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사랑과 지적인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연애 상대의 요건으로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는가와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양상은 결혼 대상 선정에는 약간의 차이를 야기하는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지적 요소보다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는가를 더 중요한 결혼 요건으로 생각했으며 이는 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가치관이 동일할 것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배우자 선택 요건으로 생각하였다. 북한인들을 연애상대나 배우자로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런 요소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각되었다. 남성, 여성 모두 북한 출신과 연애하거나 결혼함에 있어서 이해심과 사랑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북한 남성과의 결혼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가치관의 유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는 남한 출신 결혼상대와 북한 출신 결혼상대 선정에 중요한 요건이라 여겨지는 요인들의 남녀별 평균 중요도가 도식화되어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가시화된 양상은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는 북한 출신이나 남한 출신이나에 의해서이기보다는 여성의 선택이나 남성의 선택이나에 의해 더 현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인에 대해서건 북한인에 대해서건 여성들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으며 남성들의 경우 신체적 매력이나 순결을 배우자 선정의 더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대략 요약하여 보자면 남성들

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들보다 북한인 배우자를 맞이할 의향에 있어서 더 개방적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북한 출신 남성들과는 결혼의 의사가 없음이 보고되었다. 나아가 이런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변인은 남성들의 경우 개인적인 인지적 스타일, 여성들의 경우에는 북한 남성들에 대한 거리감이나 고정관념의 양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혼인의사에 영향을 주리라 예측되었던 개인의 애정관이나 가족 중의 북한출신의 유무는 혼인의사나 연애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후속적으로는 이들 개인 내적 변수들 간의 관계가 탐색되었다. 이를 위하여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와 부분상관이 비교되었다.

표 3과 표 4는 각기 남녀 별로 연애기간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요약하여 준다.

표 3. 남성 응답자들의 개인 내적 변수와 연애기간과의 상관관계

	종료 욕구	고정 관념	거리감
남한 여성과의 연애기간	.028	.050	.081
북한 여성과의 연애기간	.150	.123	.014
대상에 따른 연애기간의 차이	.174*	.117	-.061

* $p<.05$

표 4. 여성 응답자들의 개인 내적 변수와 연애기간과의 관련성

	종료 욕구	고정 관념	거리감
남한 남성과의 연애기간	.136	.134	.175*
북한 남성과의 연애기간	.211*	.286**	.282**
대상에 따른 연애기간의 차이	.157	.261**	.218**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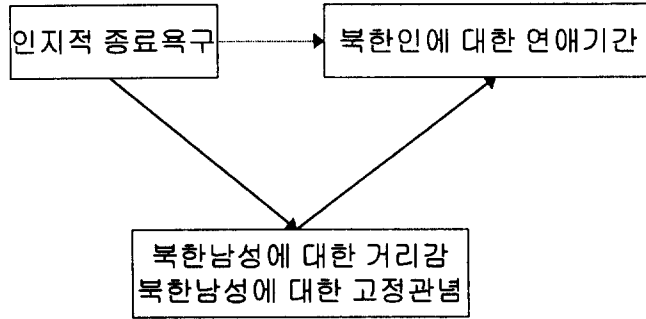


그림 3. 여성 응답자들의 북한인 이성과의 연애기간 결정모형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종료욕구만이 남한인 대상과 북한인 대상에 대한 연애기간에 있어서의 차이와 유의한 관련성을 지녔을 뿐 어떤 다른 변수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고정관념의 양과 거리감이 주로 북한인들과의 연애기간, 그리고 남한인 대상과 북한인 대상에 대한 연애기간의 차이점수와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인들에 대한 여성들의 저조한 혼인의사가 어떤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를 또다시 설명하여 주는 바, 이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북한 이성들과의 거리감을 훨씬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준다. 북한 남성과의 연애기간을 결정하는 데에는 고정관념이나 거리감 외에도 개인의 인지적인 종료의 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가적으로 이들 개인 내적인 변수들이 북한인과의 연애기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탐색하여 보기 위하여 부분 상관계수들을 산출하여 보았다.

종료욕구와 북한인들에 대한 고정관념, 북한인들에 대한 거리감 각각을 교대로 통제변수로 하여 북한인들과의 연애기간에 대한 개별 영향력을 상관분석과 부분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 본 결과 그림 3과 같은 관계가 추정되었다. 즉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지적인 스타일이 북한인과의 연애기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이들이 지닌 고정관념이나 거리감, 특히 거리감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추론은 북한인들에 대한 고정관념($r_{\text{고정관념} \cdot \text{연애기간}} = .246, p < .01$)이나 거리감($r_{\text{거리감} \cdot \text{연애기간}} = .251, p < .01$)은

종료욕구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통제된다 하더라도 북한인과의 연애기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으나 종료욕구의 경우 고정관념과 거리감이 통제되는 경우($r_{\text{종료욕구} \cdot \text{연애기간}} = .138, p > .05$) 북한인과의 연애기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결과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개인의 인지적인 스타일이 북한인과의 연애기간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 남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거리감의 정도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지적인 종료욕구가 상당히 낮아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여성들도 연애상대가 북한 출신이라면 그 거리감 또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

III. 논의

통일의 문제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남북한의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면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서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역사를 만들어왔고, 또 문화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형성하여 왔다. 하지만, 분단 이전 수 천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이어 온 '동질성'을 강조한다면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개념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연구는 이와 같은 동질성을 회복함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편견의 가장 역기능적인 측면은 그것의 표면보다도 그것은 활용 측면이다. 나아가 이런 편견의 적용은 상당히 자동적

이어서 의지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적용을 제지하기 어려운데, 현 연구의 결과는 이런 편견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정관념의 내용이나 거리감 등에 있어서는 북한 인들에 대한 남녀의 지각차이가 그다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막상 혼인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을 물어보았을 경우에는 각 개인의 반응이 평상시 그들이 지녔던 고정관념의 양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 행로로 진행되었다. 물론 이런 결과는 혼인이라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국한되는 설명일 수 있다. 그러나 결혼문제를 통한, 변수들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사례는 통독 후 독일의 동독인들에 대한 차별을 이해하는 데에 설득력있는 해안을 제시하여 준다. 즉 개인이 지닌 편견의 벽을 일단 허물지 못하면 개인이 비록 인지적으로는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불합리한 편견의 적용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보고된 것과 같은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의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방대한 양의 거리감이나 고정관념을 우선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3에서 나타난 결과는 현재 연구에 포함되었던 여성 집단처럼 북한 남성에 대한 거리감이나 고정관념이 워낙 강력한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적 스타일이 후속적인 차별행위에 그리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데, 이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고정관념 연구들의 결과들과도 상당히 일치한다. 고정관념 연구자들이 편견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과거부터 강조하였던 점은 일단 그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지식을 늘리라는 것이었다(이수정, 1999). 즉 상대 집단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그들에 대해 정확히 알면 알수록 고정관념의 양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북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주장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즉 일단의 거리감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여간해서 그 후의 판단과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표본, 즉 대학생들만을 응답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인지적인 종료육구와 같은 정보처리의 스타일이 학력제한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설명력을 잃었을 수 있다. 인지적 종료육구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학력이나 연령으로 인한 유의한 차이에 대해서는 비록 보고된 바 없지만, 개인의 인지적 스타일은 연령이나 학력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미래의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집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제한점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응답자들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 선정의 기준은 개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인 바, 현 연구에서 개인이 지닌 연애편이 배우자 선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역시 응답자들이 대부분 대학생,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도 미래의 연구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초의 세계질서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4국 체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런 시점이 오면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 미국 등에 둘러싸여 이들의 힘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한이 통일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가연합 정도를 형성하여 힘을 키워야 함은 자명하다. 또 경제적으로도 동아시아의 경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화경제권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민족은 남북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에 대응해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자면 조국의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복원과 발전이라는 문제에 앞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선부른 독일식의 흡수통일이나 '단일성'에 대한 무분별한 강조는 통일 후 우리 민족이 함께 겪어야 하는 사회적 혼란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보다는 좀더 분석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의 전문적인 노력이 앞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 즉 심리적 일치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 연구는 거리감, 즉 '우리와 다를 것이다'라는 믿음부터 우선 줄이고 동시에 개인 사고의 고정적인 틀을 열린 과정으로 개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런 관점은 통일이 정부나 지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꾸준한 계몽과 깊은 책임의식이 필요한 과정임을 시사하여 준다. 즉 진정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개개인이 내부에 존재하는 심리적 장벽을 열린 마음으로 허물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태현 (1995). 세계화 시대의 국가 안보전략. 국가전략, 1(1), 세종연구소.
 김혜숙 (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 성원사, 123-169.

- 변지은, 이수정, 유재호와 이훈구 (1997). 개인의 인지적 종료욕구와 정서에 대한 인식 정도가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0(2), 55-77.
- 송관재 김범준, 홍영오와 이훈구 (1997). 사회적 오점 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123-142.
- 이수정 (1999). 집단갈등의 심리적 원인과 대응. *경기 인문논총*, 제7호, 경기대학교 인문예술총괄학부·인문과학연구소.
- 전인영 (1990).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념적 측면. *통일방안 논문집: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이념적 기초와 정책방향*, 제1집, 통일원.
- 전우영 (1998). 정보량과 동기적 요인이 집단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우영 (1999).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19-232.
- 홍대식 (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0(2), 81-110.
- Hendrick, C., & Hendrick, S. S. (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4), 784-794.
- Kruglanski, A. W., Webster, D. M., & Klem, A. (1993). Motivated resistance and openness to persuasion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861-876.
- Lee, J. A. (1973). *The colors of love: An exploration of the ways of loving*. Don Mills, Ontario: New Press.

A Study of Prejudice of Men and Women Against North Koreans

Lee, Soo Jung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how stereotypes and social distance toward North Koreans and a personal cognitive style would influence prejudiced decision making about them. Compared to male respondents, female respondents reported much less willingness to marry North Koreans. The amount of their stereotype and feeling of distance were found to be useful predictors of such a decision. In case of male responders, they were more willing to marry North Koreans and personal cognitive style made more influence on their decision rather than the degree of stereotypes. At last,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based on various viewpoints of unification.